

미국정치의 변화와 트럼프 그리고 2020 대선: 쟁점과 전망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부교수)

뉴딜연합의 붕괴와 정당 양극화의 심화로 요약되는 미국정치의 전반적인 변화는 2016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와 샌더스 등 아웃사이더의 열풍을 불러왔고,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 부각된 미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인종주의는 다원성과 관용이라는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정치규범을 정면으로 깨는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후보시절에 보여주었던 리더십스타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 대선 국면까지 이러한 모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지지율과 미국 경제의 호황은 트럼프의 재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지만, 접전주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미국 대선의 특성상 민주당이 2016년 선거에서 패배했던 지역에서 결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긴 어렵다. 북미간의 긴장고조가 2020년 선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내부의 갈등관리에 보다 치중해야 할 때이다.

목 차

1. 들어가며
2. 미국정치의 변화와 트럼프의 등장
 - 가.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파의 몰락
 - 나. 2016년 대선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정치
3. 2020 미국 대선: 쟁점과 전망
 - 가. 대통령지지율과 경제 인식
 - 나. 탄핵
 - 다. 접전주
4. 나오며: 트럼프즘과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1. 들어가며

- ◆ 2016년 세간의 예상을 깨고 아웃사이더의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면에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당선 이후 첫 임기 동안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는 한층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국내적으로는 이른바 ‘정체성 정치’를 중심으로 강한 반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서 연방정부의 규제와 관여를 축소하는 한편, 세금과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규제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지하여 왔던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협력과 동맹의 강화를 비판하고 레이건 식의 “힘을 통한 평화구축 (peace through strength)”을 앞세워 이전의 호혜적 패권에서 약탈적이고 강압적인 패권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음.
- ◆ 이렇듯 트럼프의 첫 임기는 그동안 미국이 유지하여 왔던 대외정책의 전면적인 전환과 함께 국내적인 통합노력보다는 지지기반 중심으로 한 국내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보호무역과 고립주의의 대외정책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변화한 미국 국내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트럼프라는 기존 정치지도자들과 크게 차별화되는 인물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근본적 가치들 즉, 관용과 평등,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어졌음.
- ◆ 이 글에서는 최근 나타난 미국정치의 변화가 금융위기라는 상황적 맥락 속에서 트럼프와 같은 아웃사이더의 열풍에 용이한 정치적 환경을 제공하였고, 그것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많은 부분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고, 2020년 미국 대선에서의 쟁점과 전망들을 검토함.

2. 미국정치의 변화와 트럼프의 등장

가.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파의 몰락

- ◆ 20세기 후반 미국정치의 특징적인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뉴딜연합의 붕괴와 정당정치의 양극화’가 될 수 있음.

- ◆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뉴딜연합의 형성을 토대로 형성된 압도적인 민주당 우위의 정당체제는 1960년대 미국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를 겪게 되는데, 흑인민권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소비자 보호운동 등 사회적 쟁점들의 부상은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으로 이탈하는 계기로 작동하였음.
- ◆ 1960년대 후반 시작되어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 정당정치의 재편과정은 미국정치를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 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평가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그 역사적 패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존재하는데, 1980년 대선을 통해 연방정부의 문제와 사회적 쟁점들을 부각시켜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이 본격화되었고 1994년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공화당의 역사적 승리로 민주/공화 양 당 간의 경쟁적인 정당체제가 완성되었다는 것임.

〈미국인들의 정당일체감 비율(%)의 변화: 1972~2016〉

	'72	'76	'80	'84	'88	'92	'96	'00	'04	'08	'12	'16
민주당	51	50	52	47	47	49	52	49	49	51	46	46
무당파	15	16	15	13	12	13	9	12	12	10	14	15
공화당	34	33	33	40	41	37	38	37	41	37	39	39

출처: ANES (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s, <http://www.electionstudies.org>)

- ◆ 단순하게 말해 “양극화”라는 용어로 표상되는 미국의 분열은 민주/공화 양 당을 축으로 한 정파적 분열과 이에 영향받은 유권자층의 분열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파악될 수 있음. 선거양상과 관련하여 양극화가 가져온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됨.
- ◆ 첫째, 유권자 차원의 변화로 개인적 수준에서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 아래의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98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진보성향이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보수성향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정당일체감과 이념성향 간 연계가 강화된다는 것은 이전보다 양극화의 정도가 그 강도 면에서 더욱 강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만큼 사회 쟁점에서 대화나 타협의 여지가 줄어들음을 의미함. 이는 미국인들의 이념 성향이 단순한 개인성향을 넘어서 정치영역에서의 영향력으로 활발히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양극화”라는 용어로 표상되는 미국의 분열은 민주/공화 양 당을 축으로 한 정파적 분열과 이에 영향받은 유권자층의 분열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

〈미국인들의 이념성향 비율(%)의 변화: 1972~2016〉

	'72	'76	'80	'84	'88	'92	'96	'00	'04	'08	'12	'16
진보	19	16	16	18	16	20	20	21	20	21	25	24
중도	27	25	19	23	22	23	24	25	25	22	31	21
보수	26	26	28	28	32	30	34	32	32	27	34	32
무응답	28	32	35	30	30	26	22	22	24	30	10	22

출처: ANES (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s, <http://www.electionstudies.org>)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 1972~2008〉

		'72	'76	'80	'84	'88	'92	'96	'00	'04	'08	'12	'16
진보	민주당	70	74	77	73	73	76	87	79	86	85	88	69
	무당파	10	10	9	7	8	9	5	8	3	6	6	29
	공화당	20	15	15	20	19	14	9	13	11	7	6	3
중도	민주당	53	51	57	52	49	49	58	54	56	59	56	32
	무당파	13	19	14	14	14	15	12	14	13	17	23	49
	공화당	34	30	28	33	36	36	30	32	31	22	21	19
보수	민주당	34	30	33	25	27	27	24	23	18	28	20	8
	무당파	11	9	10	7	7	8	5	8	6	7	8	26
	공화당	56	61	57	68	66	65	71	69	77	65	72	66

수치는 각 연도 해당 이념성향에 따른 정당일체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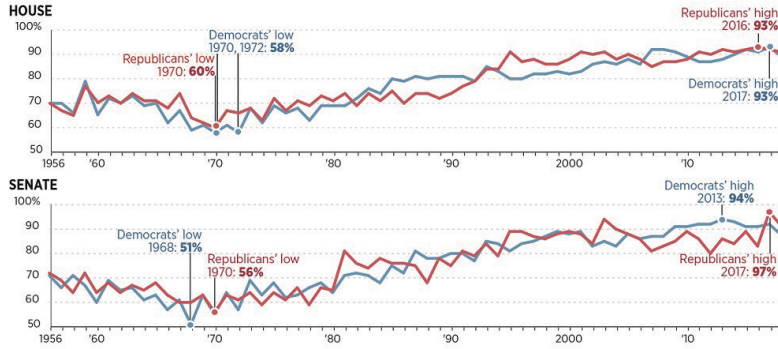
출처: ANES (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s, <http://www.electionstudies.org>)

개방형 예비경선(open primary)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강경한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졌음

- ◆ 둘째, 캠페인 전략의 변화로 정치적 양극화와 정당 간 경쟁구도의 복원은 공화당 선거전략에의 전환을 가져왔음. 즉, 정파적인 열세로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무당파와 일부 민주당 지지성향 유권자들의 지지까지 끌어내어야만 했던 상황에서 공화당은 지지성향 유권자들의 선거캠페인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변화하였음.
- ◆ 2000년, 2004년 선거에서 공화당 부시 후보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사된 바 있으며, 이러한 공화당의 전략 변화는 민주당의 지지층 역시 결집시키게 되는 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기반이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게 되면서 양당의 이념적, 정책적 차이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의회 내 정당 간 대립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짐.
- ◆ 셋째, 유권자와 정당캠페인의 변화는 선거제도 변화와 맞물려 한층 더 양극화의 양상을 심화하였음. 1970년대 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 경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개방형 예비경선(open primary)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강경한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졌음.

- ◆ 정당의 후보선출과정에서 강경한 활동가들의 영향력 확대는 중도성향의 후보들이 후보선정과정에서 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의회 내 정당 양극화를 한층 더 심화하였음.

〈의회 내 정당투표 양상의 변화(party unity scores)〉



출처: CQ report(Annual Vote Studies & 2018 Key Votes).

- ◆ 미국정치의 양극화와 강경한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의 영향력 증대는 이전과 차별화된 새로운 리더십의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시켰음.
- ◆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발발과 이로 불거진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제도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전면에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음. 경제적 어려움으로 촉발된 불만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 지속적으로 추진된 이민, 낙태, 동성애 등 진보적인 정책의 변화에 두려움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저소득 저학력 백인유권자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고,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영향력을 보였던 티파티 운동은 그러한 불만이 보수적인 유권자층에서 더욱 극명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음.
- ◆ 이러한 미국정치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는 2016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와 샌더스 등 아웃사이드의 열풍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며,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 부각된 미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인종주의는 다원성과 관용이라는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정치규범을 정면으로 깨는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졌음.
- ◆ 이러한 상황은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연방국가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 양극화의 완성으로 지역적으로 정당 지지의 정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버린 미국의 정치구도에서 경합주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의 선거전략은 대단히 효과적인 것이었으

양극화의 완성으로 지역적으로 정당 지지의 정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버린 미국의 정치구도에서 경합주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의 선거전략은 대단히 효과적인 것

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클린턴의 실패는 미국정치를 이전과는 크게 차별화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변모시켰음.

나. 2016년 대선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정치

- ◆ 2016년 미국대선은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의 압승으로 귀결되었음. 트럼프의 승리는 대중투표에서 3백만 표에 가까운 표를 더 많이 획득한 클린턴의 패배로 귀결되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에 기인한 결과였음.
- ◆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트럼프 당선의 일차적인 요인은 미국의 경제회복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이 가져온 심리적 박탈감이 인종 간 정치적 차이를 넘어설 정도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에 있음.
- ◆ 그러나 선거전략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2016년 대선결과가 보여준 새로운 모습은 20세기 중반 이후 대중매체의 출현 이후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던 선거컨설턴트와 대중매체의 역할이 퇴조하였다는 점에 있음.
- ◆ 선거과정에 대한 유권자 정보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선거캠페인의 필요성과 대중매체 활용의 중요성은 후보들의 선거캠페인이 유권자 자체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보이는 이미지에, 그리고 대중과의 직접적인 접촉 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음.
- ◆ 2016년 대선에서 클린턴은 자질과 경험 그리고 정책의 구체성에서 트럼프를 압도하였고 구축한 선거캠페인 네트워크 속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큰 흠결 없는 캠페인을 보여주었지만, 기존의 통념을 깨고 미국 내부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공화당 주류 그리고 캠페인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캠페인의 전면에 나선 트럼프는 지지유권자들에게 기존 정치인과 다른 파격적인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하였음.
- ◆ 유권자 사이에 제도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은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인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를 그들만의 이전투구로, 그 속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부당하게 자신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기 쉽게 만들었음.
- ◆ 트럼프는 선거캠페인 기간 내내 제도정치권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대중매체의 출현 이후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던 선거컨설턴트와 대중매체의 역할이 퇴조하였다는 점에 있음

거명하고 그것이 미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망가뜨려 놓은 직접적인 원인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정치권이 아닌 ‘외부’의 인물이 필요하고 자신이 그러한 인물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음.

- ◆ 트럼프 이후의 미국정치는 그가 2016년 선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지속되고 있음. 트럼프는 집권 이후 대중들과의 노출 대부분을 트위터와 자신을 지지하는 군중집회의 형식으로 갖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적 입장에 반대하거나 입장을 달리하는 조연자들을 가차 없이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 또한 대중매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을 십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와 거리를 두고 대규모 군중집회와 트위터 정치에 집중하고 있음. 집권 이후 트럼프의 행보는 캠페인 기간 보여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세간의 예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지만 환경협약에서의 탈퇴, NATO 비판, 그리고 중국과의 첨예한 무역분쟁 등 핵심지지층이 열광할 만한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
- ◆ 2018년 중간선거는 기존의 경우와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 ◆ 첫째, 의회선거만으로 치러지는 중간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여부가 중요한 선거쟁점이 되었음.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지지하는 이들의 88%가 공화당 후보를 선택하였던 반면, 지지하지 않는 이들의 90%가 민주당 후보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흔히 지역이슈가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중간선거도 연방차원의 이슈와 인물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의미함.
- ◆ 둘째, 통상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반해 유례 없이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여주었음. 2018년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1억 1천 4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수치는 2014년에 비해서 무려 3천 1백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비율로는 30퍼센트 이상 높아진 수치임. 이는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태도가 이전보다 더욱 열광적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양상은 2020년 대선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예측됨.
- ◆ 셋째, 여성과 젊은 유권자층의 폭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미국정치에 성별과 세대라는 새로운 균열 양상이 본격화되었음. 출구조사에 따르면 여

여성과 젊은 유권자층의 폭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미국정치에 성별과 세대라는 새로운 균열 양상이 본격화

성 유권자들의 59%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였고, 45세 이상의 유권자층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18~44세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61%로 공화당을 압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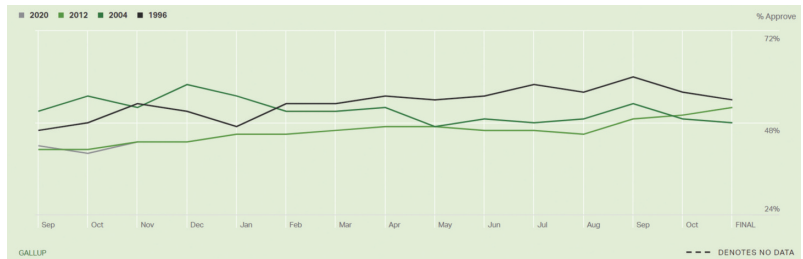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이슈는 단연 경제이며, 재선에 임하는 대통령의 경우 그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인 국정지지도도 중요하게 작용함

3. 2020 미국 대선: 쟁점과 전망

가. 대통령지지도와 경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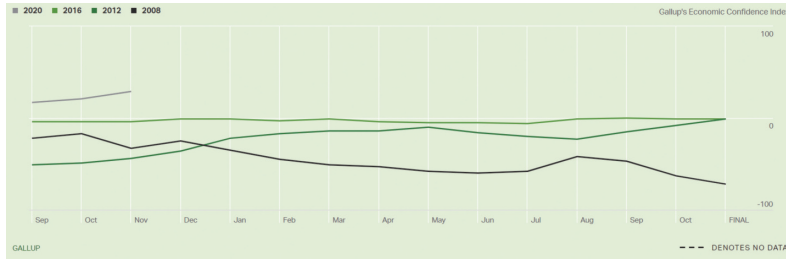
- ◆ 미국 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이슈는 단연 경제이며, 재선에 임하는 대통령의 경우 그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인 국정지지도도 중요하게 작용함. 대선을 일 년여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먼저 대통령지지도를 살펴보면,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줄곧 40% 전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같은 시기 클린턴과 부시(George W. Bush)에 비하면 10퍼센트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이며 오바마와 비슷한 수준임. 세 명 모두 재선에 성공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낙관적이지도 비판적이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재선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1992년 이후〉



- ◆ 다음으로 유권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낙관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을 30%가량 넘어설 정도로 미국인들은 트럼프 이후 경제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는 이전 행정부에 비교해서도 대단히 높은 수치로 트럼프가 선거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울 만한 정도의 업적임. 객관적인 경제지표들 역시 긍정적인데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GDP 성장률은 2.1%로 급격하지는 않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3.5%로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미국인들의 경제인식: Economic Confidenc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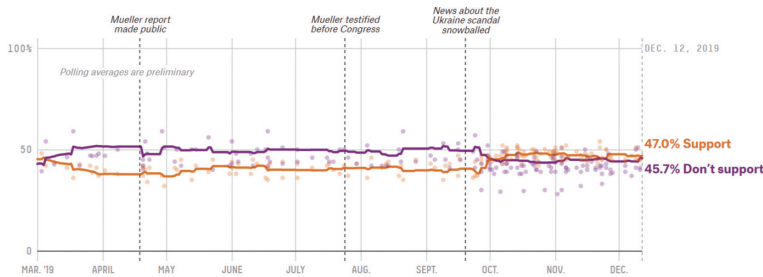


나. 탄핵

- ◆ 현재 시점에서 주목받는 또다른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진행의 추이임. 미국 헌법에 규정된 탄핵절차는 하원에 탄핵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은, 상원에 탄핵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각기 부여하고 있음.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탄핵결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2/3의 찬성으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 탄핵에 관한 여론의 추이도 어느 한 쪽에 압도적이지 않은 박빙의 형세를 유지하고 있음. 하원의 탄핵조사 절차 개시로 탄핵에 동조하는 의견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과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과거 탄핵 심판 전 사퇴했던 닉슨의 경우 탄핵찬성의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는 아님.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2/3의 찬성으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탄핵에 관한 여론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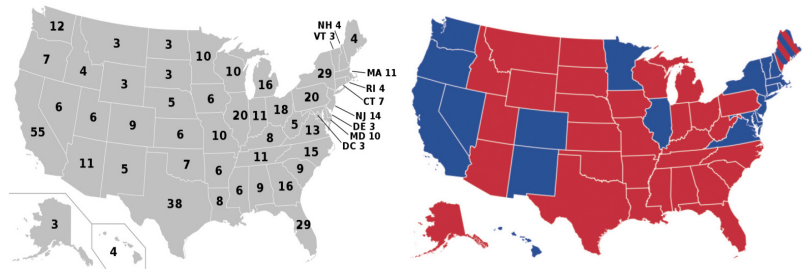
출처: <https://projects.fivethirtyeight.com/impeachment-polls/>

- ◆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트럼프 탄핵시도는 선거구도를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양상으로 만듦으로써 민주당 지지자 결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접전주

- ◆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대통령선거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개별 주 단위의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적 산출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이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모습을 혼합한 형태임.
- ◆ 이러한 선거제도는 건국 초기 연방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주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하려는 이중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절충적인 결과물로 후보자들의 선거캠페인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미국 대통령선거 선거인단 분포와 2016 대선결과〉



양극화로 인해 민주당 선호의 주들과 공화당 선호의 주들이 분명해짐에 따라 접전주에서의 결과가 선거의 최종 승자를 결정

- ◆ 접전주(swing state; battleground state; purple state)의 중요성은 1980년대 본격적으로 선거결과에 투영된 미국 정당정치의 재편성 이후, 양극화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증대되었음. 즉, 양극화로 인해 민주당 선호의 주들과 공화당 선호의 주들이 분명해짐에 따라 접전주에서의 결과가 선거의 최종승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짐.
- ◆ 최근의 선거에서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이 전통적인 접전주로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서부 지역과 로키산맥지역의 주들 역시 접전주로 분류되고 있음. 1992년을 시점으로 최근 일곱 차례 대선의 전체적인 결과는 유권자득표율을 기준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3.0 대 37.4, 49.2 대 40.7, 48.4 대 47.9, 50.7 대 48.3, 52.9 대 45.7, 51.1 대 47.2, 46.1 대 48.2%를 기록하였음.
- ◆ 전통적인 접전주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지난 일곱 차례 대선의 결과는 플로리다의 경우 민주당 우세지역에서 2000년 이후 선거부터 접전의 양상이 두드러졌음. 2004년, 2008년 선거에서는 매번 승자가 바뀌었으며 2012년 선거에서는 오바마가 1퍼센트 포인트 이내의 격차로 근소하게 승리하였으나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거두었음.

- ◆ 오하이오 주 역시 클린턴 시기에 민주당 우세지역이었다가 2000년대 들어 부시가 두 차례의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나, 이후 두 차례의 선거에서 오바마를 선택하고, 2016년 다시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음. 잘 알려진 것처럼 오하이오 주는 역대 대선의 승자와 가장 높은 연관관계를 보인바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오하이오에서 패배하고도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1960년 케네디가 유일하며 공화당의 경우 그러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전통적인 접전주들에서의 선거결과〉

연도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1992	40.9	39.0	19.8	40.2	38.3	21.0	45.1	36.1	18.2
1996	48.0	42.3	9.1	47.4	41.0	10.7	49.2	40.0	9.6
2000	48.8	48.8*	1.6	46.4	50.0	2.5	50.6	46.4	2.1
2004	47.1	52.1		48.7	50.8		50.9	48.4	
2008	51.0	48.2		51.5	46.9		54.3	44.0	
2012	50.0	49.1		50.7	47.7		52.1	46.7	
2016	47.8	49.0	2.2	43.6	51.7	3.2	47.9	48.6	2.4

수치는 각 정당후보의 유권자 득표율(%)임. * 500여 표차로 G. W. Bush가 승리.

자료출처: <https://www.presidency.ucsb.edu/statistics/elections>

- ◆ 위 두 주들이 지속적인 접전주로 남아있는 것과 달리 펜실베이니아 주는 여섯 번 연속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였으나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지역이 되었음. 그러나 그 차이는 겨우 5만 표에 불과했고 당시 제3후보였던 존슨(Gary Johnson)이 14만 표 이상을 획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 승부를 가름할 중요한 접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음.
- ◆ 신흥접전주로 분류되는 여섯 지역을 살펴보면, 2016년 공화당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중서부 지역을 보면 아이오와, 미시간, 위스콘신 주 등 세 개 지역은 지난 여섯 차례의 대선에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여 왔으나 그 차이는 2012년 선거에서 줄어들었으며 미국 경제의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으로 꼽히면서 경합지역으로 부상하였음.
- ◆ 미시간 주는 미국 경제의 침체로 미국에서도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이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결과 경제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6년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예측되었으나 공화당의 승리로 귀결된 바 있음. 그러나 그 차이는 불과 11,000표에 그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탈환의 의지를 다지고 있음.

펜실베이니아 주는 여섯 번 연속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였으나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지역

- ◆ 아이오와와 위스콘신 주는 전반적인 민주당의 우세 속에서 오바마가 상당한 격차로 승리한 지역이었으나, 2016년 선거에서 두 주 모두 공화당 트럼프가 승리를 거두며 민주당에 충격을 안겨다 주었음. 다만 선거인단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위스콘신 주의 승패가 불과 17,000표로 같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한 접전지역이 될 것임.

〈신흥접전주에서의 선거결과1: 중서부지역〉

연도	아이오와			미시간			위스콘신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1992	43.3	37.3	18.7	43.8	36.4	19.3	41.1	36.8	21.5
1996	50.3	39.9	8.5	51.7	38.5	8.7	48.8	38.5	10.4
2000	48.5	48.2	2.2	51.3	46.1	2.0	47.8	47.6	3.6
2004	49.2	49.9		51.2	47.8		49.7	49.3	
2008	53.7	44.2		57.4	41.0		56.2	42.3	
2012	52.0	46.2		54.2	44.7		52.9	46.0	
2016	41.7	51.1	3.8	47.3	47.5	3.6	46.5	47.2	3.6

- ◆ 마지막으로 또다른 신흥접전주들인 대서양 연안의 뉴햄프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주 역시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늠할 중요한 주들로 생각됨. 뉴햄프셔 주의 경우,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나 2000년대의 선거결과는 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버지니아 주는 남부의 핵심지역으로 1968년 대선 이후 공화당의 확고한 우세지역으로 자리매김하다 2008년 오바마가 비교적 큰 격차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고 2012년에도 승리를 이어갔으며 2016년도 민주당이 무난히 승리하였음.
- ◆ 노스캐롤라이나 주 역시 1976년 카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8년 대선 이후 공화당의 확고한 우세지역으로 여겨졌으나, 2008년 오바마가 근소한 차이로 신승(14,000표차)을 거두고 2012년 선거에서도 박빙의 결과를 보임으로써 경합지역으로 부상하였음. 그러나 2016년 선거에서 인종분쟁의 논쟁 속에 공화당의 승리로 귀결된 바 있음.
- ◆ 요약적으로 접전주 중 2020년 선거에서 더욱 중요한 지역은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전통적인 접전주와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승패가 결국 최종적인 선거결과를 가름할 것으로 보임. 이 중 핵심적인 지역은 당연히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주가 되며 이 지역에서 트럼프와 민주당의 후보가 보여주는 역량이 중요할 것임.

접전주 중 2020년 선거에서 더욱 중요한 지역은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전통적인 접전주와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승패가 결국 최종적인 선거결과를 가름할 것으로 보임

〈신홍접전주에서의 선거결과2: 대서양 연안〉

연도	뉴햄프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민주	공화	기타
1992	38.9	37.6	22.6	40.6	45.0	13.6	42.7	43.4	13.7
1996	49.3	39.4	9.7	45.1	47.1	6.6	44.0	48.7	6.7
2000	46.8	48.1	3.9	44.4	52.5	2.2	43.2	56.0	0.0
2004	50.2	48.9		45.5	53.7		43.6	56.0	
2008	54.4	44.7		52.6	46.3		49.7	49.4	
2012	52.0	46.5		51.2	47.3		48.4	50.4	
2016	46.8	46.5	4.1	49.8	44.4	3.0	46.2	49.8	2.7

4. 나오며: 트럼프즘과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이른바 “미국우선주의”를 기치로 국제적으로 공세적인 약탈적 패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2020년 대선까지도 이러한 양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공산이 큼.
- ◆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 자체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국의 정책결정이 이전처럼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공화당의 지도부가 별다른 제어 없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 2018년 중간선거에서도 트럼프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예비선거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비판적이었던 공화당 정치인들은 실패를 거듭하거나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던 반면(ex. Mark Sanford, SC; Jeff Flake, AZ), 트럼프 지지로 표변한 공화당 정치인들은 큰 어려움 없이 경선을 통과하여 선거전략에 있어서 공화당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트럼프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재확인되었음.
- ◆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은 취임 후 줄곧 40퍼센트 안팎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당 의회 출범 이후 연방정부 폐쇄, 탄핵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이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 ◆ 그럼에도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당정치는 2020 대선을 향한 움직임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 자체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국의 정책결정이 이전처럼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공화당의 지도부가 별다른 제어 없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

맞물려 변화의 조짐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음. 이미 2018 중간선거 과정에서 트럼프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수동적으로 끌려갔던 공화당 내부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등장한 바 있으며, 그러한 목소리는 트럼프의 극단적인 양극화 전략과 (주로 문화적 보수주의에 집중한) 정체성 정치에 대한 반감이 공화당의 또다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적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강해지고 있음.

거의 광신적인 지지를 보이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큰 실패가 가시화되지 않고서는 트럼프의 몰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 ◆ 이는 공화당의 구성하고 있는 경제적 보수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라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보수주의 간 갈등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을 의미함. 다만 거의 광신적인 지지를 보이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큰 실패가 가시화되지 않고서는 트럼프의 몰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 ◆ 그러나 트럼프가 국정운영의 과정에서 보여준 극단적인 양극화와 선동정치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상당하고 이들이 선거에의 높은 참여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얼마만큼 견인해낼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느냐가 관건으로 남아 있음.
- ◆ 따라서 민주당의 후보선출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나 특별한 선두주자 없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모습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짐. 이러한 측면에서 대선 후보 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을 견인해 낼 러닝메이트의 선정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임.
- ◆ 미국의 대선국면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슈보다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지가 될 것임.
-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맺지 못하고 특별한 돌파구 없이 이전의 대결구도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미국 내에서 북한문제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와 트럼프가 집권 이후 대외적으로 보여준 협상의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북미 간의 긴장 고조는 불가피해 보임. 다만 긴장고조 속에서 드라마틱한 연출을 통해 극적인 해결점을 추구하는 그간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 2020년 대선 직전 북미 간의 극적인 타결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움.
- ◆ 현시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속에서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가 될 것임.

- ◆ 이념적인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그 폭발력이 대단히 클 수 밖에 없고 갈등의 심화는 정부의 정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투명한 정책결정과 운영을 통해 국내적인 갈등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임.

❖ 저자 약력

■ 유성진

現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부교수. 미국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선거, 여론, 정당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미국정치연구회 회장(2019년) 역임. 주요 논저로는 『도전과 변화의 한미정치』(공저, 2014), 『미국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공저, 2017),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공저, 2018)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한유진(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